

최종편집 : 2021-10-19 09:33 (화)

로그인 회원가입 BBS불교방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세검색

f t y v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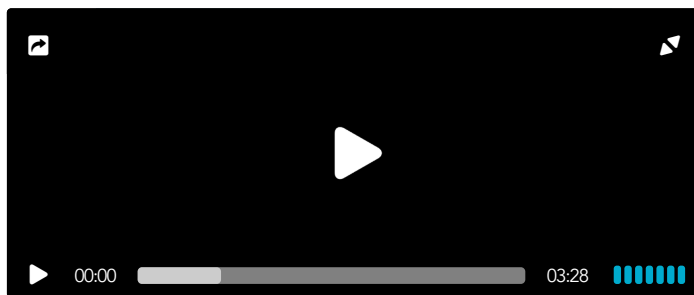
전체 경제 정치 사회 문화·스포츠 불교 국제 전국 | BBS 인터뷰 BBS 칼럼 BBS 취재수첩 BBS PLAZA 인사/부고



홈 > 불교

호국성지 표충사에서 "국난극복"...동남아 불자 동참

홍진호 기자 | 입력 2021.10.16 16:31 | 수정 2021.10.18 00:07 | 댓글 0



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.

앵커

삼보사찰 108천리순례가 종반에 이른 가운데, 순례단은 홀 날리는 빗속을 전진해 사명대사 호국성지 표충사에 도착했습니다.

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선 선조들의 애국정신이 깃든 곳에서 동남아 국가 불자들도 합세해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외쳤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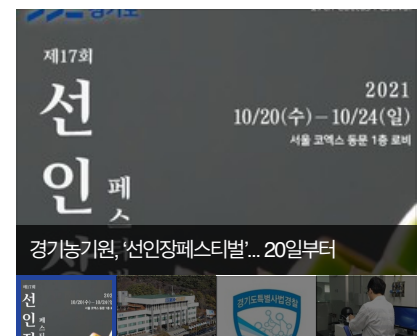
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

최신뉴스

- 전국 | 경기농기원, '선인장페스티벌'... 20일부터
- 전국 | 경기도,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사업자 공모
- 전국 | 경기도 특사경,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...
- 전국 | 경기도 보현연, 의약품 품질검사 대행
-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| [박경수의 아침저널 클로징] 깊어...

포토뉴스



인기뉴스

- 1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... "영취산 그대로가 법신 부처"
- 2 "부하 여직원 상습 성추행" 제주시 국장 '상습성 인정'...
- 3 [코로나19] 오늘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8명·비수도권 10
- 4 노인들 요양원, 요양병원에 가능한 늦게 가는 구조 만들
- 5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경제권 추진 박차

기자

흘날리는 빗속에서 이어진 16일째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.
홍제중학교를 거쳐 표충사로 가는 도로 위, 제법 굵은 빗줄기 속에서 주한 외국인들이 순례단을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.

[인서트] “삼보사찰 천리순례, 국난극복, 불교중흥”

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을 시작으로 순례단이 도착하자, 모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든 손을 더욱 힘차게 흔들며 ‘불교중흥’을 외칩니다.

경북 구미에서 오랫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 온 진오스님의 순례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이들로, 대부분 동남아 불교국가 출신들입니다.



[산트시리 스님/ 구미 마하이주민센터 지도법사]

“한국에서 보면 절보다 교회가 많이 보여요. 여기 경상북도는 그렇지 않지만 저도 옛날에 서울 살았었는데 서울에 가면 교회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불교신자들이 더 열심히 발심해서...”



6 삼보사찰 천리순례, 18일 대장정 마침표...통도사에서 회



7 경북 16개 사군 '인구감소지역' 지정...경북도 '지방소멸'



8 오세훈, 전임 시장 추진사업 일제 점검...관련 단체 반발



BBS칼럼

- 전경윤의 '세상살이'
- 전영신의 '사상'
- 신두식의 '공감노트'
- 배재수의 '크로키' NEW
- 이현구의 '스윗 스팟'
- 선임기자 칼럼

월 1만원 이상,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

만공회

가입문의 **1855-3000**

ARS 후원 **060-800-8000**
(한 통화 5천원)

이윽고 삼보순례단의 발길은 사명대사의 일이 서린 호국성지 표충사에 닿았습니다.

우비 하나로 빗줄기를 견디며 다다른 자승스님을 선두로 순례단원들은 차례대로 사명대사 등 조사들의 진영에 차례로 차를 올렸습니다.

임진왜란 당시 쓰러져 가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사명대사처럼,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이 400여 년 전 그때 처럼 재약산에 울려 퍼졌습니다.



[진오스님/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]

“16일간 날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370여 km를 걸어 이곳 표충사에 도착했습니다. 그 무엇이 저희로 하여금 사명대사의 충혼이 깃든 재약산 표충사로 찾아오게 하셨습니까. 그것은 국난극복과 불교중흥만이...”



표충사는 사명대사의 금란가사를 비롯해, 교첩과 교지 등 대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으로,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진각스님은 2년 전 상월결사에 아홉 스님 중 한명으로 참여했습니다.

[진각스님/ 표충사 주지]

“제가 상월선원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응원을 받고 묵숨
걸고 회주스님 모시고 정진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...”

[스탠딩] 불교중흥 이뤄주세요. 불교국가에서 온 사부대중들의
외침이 호국성지로 가는 삼보순례단에게 힘을 실어 줬습니다.

밀양 표충사에서 BBS NEWS 홍진호입니다.

(영상취재=남창오)



홍진호 기자 jino413@naver.com

저작권 © BBS NEWS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



추천
0



반대
0

당신만안본뉴스

‘큰스님의 아멘’ 각계 반향... “벽을 허무는 큰 울림”
[코로나19] 서울 노원구 병원 관련 28명 확진...병원-...
[배재수의 크로키] ‘위드 코로나’와 남산의 가을
국민의힘, 오늘 광주에서 첫 TV토론..5,18묘역 참배도
문 대통령 “청정수소 선도국가’ 강력 추진”
[뉴스파노라마 한글날특집] 김무봉 명예교수 “첫 한글...
윤건영 “이준석 대표, 여당(이재명-이낙연) 이간질 그...

‘큰스님의 아멘’ 각계 반향... “벽을 허무는
큰 울림”

기사댓글 0



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.

권리침해,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.
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.

0 / 4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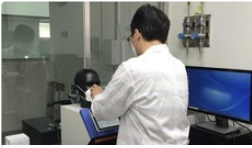
주요기사



경기농가원, '선인장페스티벌'... 20일부터

경기도,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사업자 공모

경기도 특사경,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



경기도 보환연, 의약외품 품질검사 대행



[박경수의 아침저녁 클로징] 깊어가는 가을...안치환



'중구형 방과후 학교' 전국 최초 지자체 부담 "호평"...



[매체소개](#) | [기사제보](#) | [광고문의](#) | [이용약관](#) | [개인정보처리방침](#) | [청소년보호정책](#) | [저작권보호정책](#) | [이메일무단수집거부](#)

BBS불교방송(재) |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(다보빌딩) | 대표전화 : 02-705-5114 | 팩스 : 02-705-5229 | 청소년보호책임자 : 배재수
제호 : BBS NEWS | 등록번호 : 서울 아 01259 | 등록일 : 2010-06-03 | 발행일 : 2001-09-01
발행인 : 박형수(중하) | 편집인 : 전경윤

BBS NEWS 모든 콘텐츠(영상, 기사, 사진)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, 무단 전재와 복사, 배포 등을 금합니다.

Copyright © 2021 BBS NEWS. All rights reserved. mail to webmaster@bbsi.co.kr

POWERED BY **NE**